

광양항 일반부두 '북적' 컨테이너는 '썰렁'

일반 - 화물량 넘쳐 체선 손실 연 수백억

컨 - 16선석 규모 부두 물동량 없어 놀려

#1. 16일 광양항 연안 일대, 거대한 크레인이 2300t의 대형 콘크리트 케이스(직육면체 모양의 대형 블록)을 집어 광양항 바다 밭바닥에 쌓고 있었다. 포스코 광양제철이 항만에 접안하려고 대기하는 배들의 체선(漂船)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중인 20만t급과 7만t급 부두 확장 공사 현장이다.

#2. 광양항 컨테이너 부두의 겐트리 크레인(Gantry Crane) 야드, 16개 컨테이너 부두에 설치된 크레인들은 60t짜리 컨테이너를 들어올리는 대신, 할 일이 없어 하늘을 향해 두 팔을 틀고 있었다. 한켠에 16척의 배가 들어와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는데도, 물동량이 없어 썰렁하기만 했다.

광양항의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일반 부두는 포스코 광양제철과 여수 산업단지 입주 기업의 화물량이 증가하면서 광양항 앞바다에 머물며 대기하고 있는 선박들이 많지만, 연간 548만TEU를 처리할 수 있는 컨테이너 부두는 물동량이 없어 부두를 놀리고 있는 실정이다. <관련기사 3면>

16일 여수·광양항만공사에 따르면 84선석(배가 육지에 대는 부두)을 갖추고 있는 광양항의 물류 물동량은 지난 9월 말 1억7082만t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억5956만t)에 견줘 7.1% 증가했다. 특히 올 상반기 부두시설 부

쪽으로 광양항 앞바다에서 대기하는 배들의 체선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만 56억9800만원에 달했다. 3만t급 일반화물선이 12시간동안 접안하지 못하는 데 따른 손실액이다. 국정감사에서는 올 상반기 광양항에 입항한 1만906척 가운데 5.1%에 해당하는 558대의 물동량의 경우 ▲7월 16만7000TEU ▲8월 14만8000TEU ▲9월 16만3000TEU 등에 그치면서 인천항 물동량(7월 16만8000TEU·8월 15만6000

TEU·9월 16만8000TEU)에 밀려 국내 2위 항만의 자리마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물동량 증가 추이에 따라 시설을 늘리는 '트리거 룰(Trigger Rule)'로 항만개발 정책을 바꾼 탓에 이대로라면 남아있는 컨테이너 항만 개발도 늦춰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김명수 순천대 물류학과 교수는 "일반 부두 물동량이 늘어났더라도 지역 경제 과급 효과가 큰 컨테이너 물동량을 늘릴 수 있도록 수도권 화물 유치를 위한 획기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16선석 규모의 광양컨테이너부두는 연간 548만TEU를 처리할 수 있지만 물동량이 200만TEU 수준에 그쳐 한산하기만 하다. 전문가들은 수도권 화물 유치를 위한 획기적인 방안 마련을 주문하고 있다. /광양=김진수기자 jeans@

어등산 불발탄 제거 완료…관광단지 가속도

4년만에 총 1365발

광주어등산관광단지 내 불발탄 제거 작업이 4년여만에 마무리돼 공사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17일 광주도시공사에 따르면 육군은 어등산관광단지가 들어설 공산구 운수동 일대 273만2000m²에 대한 불

발탄 제거 작업을 최근 완료했다. 지난 2007년 4월 불발탄 제거 작업을 시작한 지 4년여만이다. 육군은 이 기간에 총 1365발의 불발탄을 제거했다.

불발탄 제거작업이 모두 마무리됨에 따라 기반시설 공사 등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도시공사는 현

재 공정률 82%를 기록하고 있는 골프장(대중제 9홀, 회원제 18홀)을 내년 4~5월께 개장할 계획이다. 또 전망대와 야외공연장 등을 갖춘 테마파크와 특급호텔, 가족호텔은 오는 2015년까지 완공할 예정이다. 골프장과 테마파크, 가족호텔은 현재 사업자인 주어등산리조트가 총 사

업비 3400억원을 투자하기로 돼 있다. 민자사업자를 유치하기로 되어 있는 특급호텔의 경우, 최근 광주를 방문한 미국 부동산 투자기업인 CIM 그룹이 투자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어 주목된다. CIM 그룹의 리처드 레슬러 회장은 지난달 전용기 편으로 광주를 방문해 어등산관광단지를 둘러본 뒤 "미국 기업 간 컨소시엄을 구성해 3개월간 사업성을 분석한 뒤 투자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었다.

/총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행복한 미소가 넘치는 해피니스CC로 초대합니다.

광주에서 15~20분대의 우수한 접근성과
밀리지 않는 정확한 티오프시간으로 고객의 시간까지 책임지겠습니다.
혜택이 좋은 회원권 보다는 대우받는 회원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역사교과서 5·18 수록 의무화

교과부 세부 검정기준 마련… 광주연선회의 "집필기준에 꼭 넣어라"



강운태 광주시장과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1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과서 집필기준에서 5·18 등 주요 사건들을 집필기준에 반드시 포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교과부 직속기관이자 교과서 검정 심사기관인 국사편찬위원회는 17일, 2013년 이후 중학교에서 사용될 역사 교과서에는 5·18 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등 주요 역사적 사건들이 반드시 수록돼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중학교 역사 교과서 세부 검정기준을 확정·발표했다.

이

는

지난

8월

9일

중

학

교

과

서

는

2013

년

부

터

5·18

민

주

화

운

동

등

주

요

사

건

정

기

준

을

제

정

하

면

되

는

것

이

되

는

것

이

되

는

것

이

되

는

것

이

되

는

것

이

되

는

것

이

되

는

것

이

되

는

것

이

되

는

것

이

되

는

것

이

되

는

것

이

되

는

것

이

되

는

것

이

되

는

것

이

되

는

것

이

되

는

것

이

되

는

것

이

되

는

것

이

되

는

것

이

되

는

것

이

되

는

것

이

되